

우리 나라의 음주 실태

김 공 현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보



'96년에 우리나라의 주류 생산량은 283만6천킬로리터였고, 수입액은 2억 819만5천 달러였으며, 수출액은 7,381만6천달러였다. 그래서 주류의 수출입에서도 2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 보고하는 문서가 있다. 생산된 주류를 모두 큰 맥주병(750밀리리터)으로만 채운다면 약 38억 병이나 된다.

생산된 주류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맥주가 166만 9,100킬로리터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주로 81만3백킬로리터였으며, 탁주가 세 번째로 23만6,600킬로리터였다. 와인은 5,800킬로리터가, 위스키는 26,600킬로리터가 각각 출고되어 전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청주도 48,600킬로리터가 출고되어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주류시장의 전체 규모를 금액으로 나타내면 5조4,080억원이 되었고 이러한 규모는 1995년보다 16%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

고 있었다.

수입되는 주류는 양주, 맥주, 와인 등이 있었으나 양주가 1억8,692만4천달러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수출한 주류는 금액으로 보면 맥주와 소주가 각각 비슷했다.

수출입한 주류의 금액은 수입액이 월등하게 많으며, 그 양이 각각 얼마인지 조사하기가 어려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양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996년에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소비한 술의 양은 국내의 생산량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할 경우, 1996년에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소비 주류는 96리터로 추산된다.

술의 소비량은 술에 포함된 알코올의 함량을 기초로 삼아 순수 알코올의 양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주류의 알코올 함량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맥주는 5%, 소주는 25%, 탁주는 15%, 위스키는 40%, 와인은 5% 등으로 다

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순수 알코올 양으로 환산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것을 기초로 어림잡아 보면 우리나라에서 1996년에 생산된 전체 주류의 순수 알코올량은 소비량의 10% 정도라고 계산된다. 이 계산에 의하면 1996년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순수 알코올로 약 10리터 정도로 추정된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이 정도라면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수준에 속한다. 대체로 알코올을 많이 소비하는 국민으로 꼽히고 있는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국민들의 1인당 연간 소비량과 비슷한 양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1996년 주류시장의 규모는 금액으로 5조



4,080 억원이므로 15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1인당 1996년 한해에 주류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액수는 184,000원이나 되고, 이것은 우리 나라 1인당 연간 보건의료비와 같은 액수가 되어 국민 15세 이상 성인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한 해의 보건 의료비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술에는 에틸알코올이란 성분이 들어 있어서 마시면 취하게 된다. 이를 계속해서 마시면 알코올중독자가 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에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건국담 중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수천년동안 마셔 왔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술은 음식의 하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종교적 행사나 조상에 대한 제례적 행사, 그리고 사람들 간의 친교적 모임 등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중심적 음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음주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결코 부도덕하다거나 범죄시되는 일은 없다.

사람들은 상하간이든, 노소간이

든, 친구간이든, 기쁠 때나 슬플 때, 좋을 때나 나쁠 때 한결같이 '술 한잔 합시다'를 인사말처럼 주고 받는다. 오랜만에 만나거나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도 역시 '소주나 한잔 합시다'란 말을 스스럼 없이 주고 받는다.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성인이라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일정한 양의 술을 마셔야 그 학교의 신입생으로 인정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급기야는 어떤 학교에서 술을 먹지 못하는 신입생에게 다량의 술을 억지로 먹여 그 학생을 죽게 한 일로 상급생이 구속까지 되었다고 도하 신문에 보도된 일도 있다.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소위 '폭탄주'란 것을 만들어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나 못 마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또한 주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참석자 모두에게 잔을 돌려 가며 강제로 마시게 하여 골아 떨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폭탄주'를 마심으로 갖가지 말 못할 부작용이 많이 생겼던 것을 경험자들은 잘 알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 사회에 자가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이들 가운데는 음주운전을 다반사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운전자나 승차자의 생명까지도 잃게 하는 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음주 운전이 최근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심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어떤 음주 운전자는 단속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조차 거부하고 도망치는가 하면 음주 운전 때문에 인신이 구속되기도 한다. 하다 못한 어떤 경찰관서에서는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류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된다면 마시지 않는 것도 똑 같이 용납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따라 주량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그것은 당사자가 누릴 자유로, 주량도 음주자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누릴 수 있는 자유로 각각 용인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음주를 해야 남자라거나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음주 자체와 음주량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남자이고 성인이 된다는 통념이 널리 받아들여 질 때, 우리 사회에는 건전한 음주 문화가 조성되는 기초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듯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72

